



“박 사장, 외부 여론 똑바로 알라”

노조, 사측의 불성실 협상태도 비판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13일 본사 7층 사장실 앞 집회에서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 나듯이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박 사장의 소극적인 협상태도를 규탄했다.

공 위원장은 “KBS에 이어 국민일보도 파업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연합뉴스와 MBC만 남은 상황”이라며 “박 사장은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사장은 말로는 ‘연합뉴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다른 언론사들의 눈치 보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연합뉴스 파업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 위원장은 “우리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협상의 한 당사자만 성실한 태도를 보여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박 사장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개인적 인생 차원에서 더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합뉴스 파업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은 사측이 어떻게 노조에 강경대응을 하느냐가 아니라 노사가 얼마나 지혜롭고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점이란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이 연합뉴스 파업 현장을 지지 방문했다. 단식투쟁 16일째를 맞아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이 위원장은 이날 사장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사 파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왔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함께 새 역사를

쓰자”고 힘줘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 파업 출정식 때 자신이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중 리영희, 송건호와 같은 존경받는 언론인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여러분은 그런 저력을 이미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바꿔놨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며 “자신이 이렇게 굳건히 버티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놀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 마음에 비친 네 모습을 보여줄게”

롤링 페이퍼 돌리며 우의 다져

조합원들은 13일 사장실 앞 집회에서 동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마음 속에 담아뒀던 말을 글로 써서 전하는 ‘롤링 페이퍼’를 돌린 것. 조합원들은 약 1시간30분 동안 각자의 이름이 적힌 롤링 페이퍼를 돌리며 해당 동료에 대해 느낀 감정을 글로 남겼다.

‘멋있다’, ‘웃긴다’ 등 평소 동료에게 받은 느낌을 짝막하게 적은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파업 기간에 보게 된 모습에서 받은 느낌을 담은 글도 많았다. 한 조합원의 롤링 페이퍼엔 ‘파업 기간 늘 함께 해줘서 든든했다’, ‘파업 특보에 실린 글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라는 글이 적혔다.

다문화부 경수현 조합원의 롤링 페이퍼엔 누군가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다시 한번 열창을 부탁한다’고 쓴 것이 공개돼 7층 사장실 앞이 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에 다진 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증권부 이을 조합원은 “얼굴을 맞대고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파업 기간에 동료에 대해 갖게 된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주로 적었다”며 “이번 파업으로 만들어진 동질감으로 연합뉴스의 조직문화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느 파업노동자의 일기> 장덕중 광주전남취재본부 조합원



“여보, 피곤하면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 “아니,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데려다줘야지.”

매일 아침 우리 부부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아내는 출근과 딸 어린이집 등교 준비로 바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남편 걱정뿐이다. 파업으로 예민해진 남편의 감정, 혹은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나온 배려일 것이다.

그렇다고 유로 2012를 보랴 늦게 하면서 뻘뻘스럽게 계속 잘 수도 없는 노릇. 씻지도 않고, 대충 옷을 챙겨입고, 모자도 눌러쓴 채 아내와 딸을 차에 태운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일단 딸을 내려주고 30분 거리인 직장까지 아내를 데려다준다.

이후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챙겨먹는다. 그리고 아내와 딸이 벗어놓은 ‘허

물’을 챙기고, 아내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간다. 어린이집이 끝날 때쯤이면 다시 딸을 데려와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놀아주고, 아내가 돌아오면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저녁을 보낸다.

가끔 아내는 파업 때문에 출근길도 편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덜게 됐으며, 파업이 끝날 것을 우려하는 ‘망언’을 날리기도 한다. 업무에 복귀하면, 나는 다시 일찍 집을 나설 것이다. 그러면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딸을 깨우고, 여전히 꿈나라에 빠진 딸을 업고 힘겹게 출근길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직장에 어렵게 도착하면 “오늘도 늦었다”는 상사의 타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 같은 접시, 남기고 간 허물 등을 치우느라, 딸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아내의 고생을 파업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됐고, 가족의 출근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가장

의 일과가 됐다.

지방 조합원들은 본사에 비해 집회참석 등의 파업 일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만큼 자유 시간도 많아 본사 조합원들의 ‘질투’를 사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의 처지 때문인지 나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한다는 핑계로 집과 가족을 버려둔 죄를 갚아라”라는 가족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뻔뻔함도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파업 기간에 딸은 감기에 걸려 입원과 통원 치료로 보냈고, 딸의 간호는 내 몫이 됐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 탓에 집안일도 대부분 내 몫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투정’도 부려보고 ‘육아·가사 파업’도 선언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일터를 떠나 가정에 자리를 잡았다.

언젠가 딸이 새벽에 열이 나자 엄마 대신 아빠를 찾았다. 파업 전만 해도 퇴근하면 딸에게서 ‘아빠’라는 말을 들은 적도 거의 없었고 잠든 얼굴만 보는 게

대부분이었기에 처음엔 낯설기까지 했다. 일을 핑계로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를 찾지 못하던 내게 파업은 가족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낳으면서 ‘그저 돈만 벌어오는 기계 같은 남편과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하고 다짐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는 아내에게는 ‘돈만 잘 벌어들이면 되지 않느냐’, 딸에게는 ‘왜 말을 안 듣느냐’며 큰소리만 치는 가장이 돼 있었다.

그러나 파업을 겪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아내의 고충, 무뎠던 아빠가 어려워 다가오지 못하는 딸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됐다. 피곤한 몸으로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했던 아내, 부모가 모두 바빠 혼자 놀아야 했던 딸이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요즘 아내는 남편이 있어 든든하다며 일찍 잠을 청하고 딸은 아빠와 놀다가 잠이 들곤 한다. 어찌 보면 파업은 내게 소중한 꿈과 가치를 되찾아준 소중한 기회가 됐다.